“건학이념 구현해 동국 발전 매진”

동국대 캠퍼스 · 의료원, 건학위 출범 잇달아

서울캠 9월14일 첫 건학위 구성
경주캠 · 의료원도 건학위 출범
신행 인재양성 기금 등 5개분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기관들이 단위별 건학위원회를 잇달아 출범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14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자승) 출범 이후 법인 산하기관 중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가 처음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원회)는 증명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장 자승 스님을, 고문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건학위원장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부위원장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이 맡았다. 건학위원으로는 정각원장 묘주 스님을 비롯해 정책위원(16명), 대학장(4명)이 참여한다. 또한 △신행 · 포교 △인재양성 △지속성장 △기금 · 재정 △글로벌 등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분야별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상임위원 돈관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교수는 교육과 연구, 교직원은 교육행정, 학생은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동국대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에게 동국대와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한국불교의 위기는 곧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동국대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건학위원회 출범이 불교계와 동국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진행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는 △증명 △고문 △건학위원장 △건학위원회△분과위원회(신행/포교, 인재 양성, 지속 성장, 기금/재정, 글로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됐다. 증명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이, 고문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경주캠퍼스 건학위원장을 맡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경주캠퍼스 건학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곧 건학이념을 수행하고 앞으로의 불교 천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든 구성원이 불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을 가지고 건학정신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용맹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의료원(원장 채석래)도 10월 15일 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동국발전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 산하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의료원 건학위원회는 신행, 의료, 대학, 기금 등 4개 분과로 나눠 의료 협력 사업을 확대해 환자와 교직원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수처작주의 자세로 자비의 의술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으며, 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금률, 육식 거부 근거”

대행선연구원, 9월 11일 계절발표회 개최

안성두, 슈미트하우젠 저서분석
대승불교 육식거부 근거들 살펴
윤종갑, 대행 선사 ‘주인공’ 고찰



‘모든 존재는 고통과 죽음을 싫어하기에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 는 황금률이 대승불교의 육식 거부의 근본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두 서울대 교수는 9월 1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 제10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대승불교에서 육식의 거부와 그 근거’ 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안 교수의 논문은 랍버트 슈미트하우젠의 최근 발간 저서 〈인도불교에서 육식과 채식주의〉를 분석하고, 대승경전의 기록에서 육식 포기의 근거를 찾았다.

그에 따르면 베다의 희생제의를 반대해 “살생은 잔인함의 표현”이고 “동물에 대한 보살핌과 공감에 의해 살생을 멀리해야 한다”는 초기불교의 아힘사 원칙이 도입됐다. 아힘사에서의 공감은 ‘모든 존재들이 자신처럼 고통과 죽음을 싫어한다’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불살생을 촉발시키는 ‘황금률’ 의 형태로 나타났다.

“내가 그렇듯이 그들도 그렇다. 그 자신을 비교로 하여 그는 살생하거나 살생하도록 시켜서는 안된다”와 같은 〈숫타니파타〉의 게송이 불살생의 ‘황금률’ 을 보여준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주목되는 것은 육식의 포기가 붓다 자신에 의해 확정됐다는 〈대승열반경〉의 주장”이라며 “육식 포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경전 편찬자가 알던 모르던 간에, 붓다의 정신적 후계자들은 이제부터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종갑 동아대 교수는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불교 공사상의 전개: 붓다의 제일의공, 용수의 무자성 공, 그리고 대행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를 통해 붓다와 용수, 대행 선사의 공사상을 비교 · 분석하고,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공사상”이라고 주장했다.

어려운 수행적 과제였던 공사상을 ‘주인공’ 이라는 개념을 빌려 공을 새롭게 해석해 대중적 · 실천적 공사상을 설한 선지식이 대행 선사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대행 선사는 붓다의 무아설, 용수의 무자성 공을 중국 선불교와 중도적으로 상즉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주인공 사상을 정립했다”면서 “붓다의 공사상은 용수와 대행 선사에 의해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지행합일의 공사상으로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 본격화

민추본 · 고성군, 9월14일 협약
금강산권 불교 문화재 재복원
“남북 평화 협력 중장기 토대”
민추본 강원 지역본부 발대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고성군은 9월 14일 고성군청에서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강산 권역의 불교 문화재를 잇는 옛 순례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옛 수행자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잊혀진 옛길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순례길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와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9월 14일 고성군청에서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례길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고성 건봉사를 시작으로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과 北유점사와 신계사 등 금강산 권역의 사찰과 사찰을 이었던 순례길은 과거 사명대사 등 수많은 수행자들의 발자취가 남겨졌지만, 남북 분단 이후 민통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잊혀진 옛 길이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봉사와 민통선 내 폐사지를 시작으로 순례길을 조사 · 복원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순례길 뿐 아니라 민통선 내 폐사지를 조사, 발굴 및 복원하고 나아가 금강산권 불교문화재 보수복원 등 남북 협력 사업까지 지원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추본과 고성군의 협약으로 진행될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 은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현실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고성 건봉사를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관계가 해소될 경우 유점사와 신계사 등 북측 사찰로 이어지는 순례길로 확대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분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온 고성군민들의 아픔이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되면서 치유되는가 했지만, 다시금 단절의 슬픔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력하나마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멀지 않은 시기 고성에서 시작된 길이 북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염원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추본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에서 강원지역본부 출범식도 진행했다. 강원본부는 부산본부, 인천본부에 이은 세 번째 지역본부로, 현담 스님을 초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고성=송지희 기자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발표

중앙신도회, 9월 13일
박수빈불자 대상 수상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최한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 에 박수빈(문수행/영평사) 불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박수빈 불자는 불교성전 ‘제3장 보살의 길’ 중,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을 연필로 필사했다. 붓이나 펜보다 더 정교하게 강약 조절까지 표현한 작품 속에서 손글씨의 정성은 물론 엄청난 신심이 느껴진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진미(보경화/도림사) 불자로 원고지 한 칸 한 칸 개성이 돋보이는 필체를 선보이며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동심이 느껴지는 어린이 불자의 작품부터 서툰 한글 실력이지만 정성 가득한 재외동포 불자의 작품까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손글씨 작품들이 소개됐다.

한편, 이번 손글씨 공모전은 7월 12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102개의 손글씨 작품이 접수됐으며 9월 13일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24명의 작품이 입상했다. 노덕현 기자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